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6년 8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29 No. 2, 107-115, August 2016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dx.doi.org/10.15434/kssh.2016.29.2.107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현아[1] · 조은영[2]

가톨릭대학교 대학원[1], 전주대학교 간호학과[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Ego-identity Forma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Hyun-A Nam[1] · Eun-young Cho[2]

[1]PhD in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Department of Nursing, Jeonju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which attempts to understand family strength, parenting attitude, and the ego-identity perceived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ego-identity of the students. **Method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186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hile using SPSS 23.0 program. **Results:** Family strength and the ego-identity perceived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at a mid-level, with an average of 207.76 and 149.72 points, respectively. Parenting attitude showed scores higher than the mid-level, recording 90.36 points in averag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the higher family strength and the ego-identity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 better were the patenting attitudes of perceived parents. Besides, family health,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form (nuclear family)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influencing ego-identity forma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explanatory power being 25.5% in total. **Conclusio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which take into account family strength is considered necessary to help the youth form positive ego- identity.

Key Words: Family strength, Parenting attitude, Ego-Identity, Family, Female high school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는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고 주체성을 확립하며 건강한 통제력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향후 사회의 적극적 주체자가 될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많이 인식되고 있으나 입시위주의 현 사회 풍토에서 간과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61.4%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여학생의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과 진학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7.9%의 청소년이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위협받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의 현 실태로 보건의료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측면이며, 청소년은 미래 우리사회를 선도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Corresponding author: Eun-young Cho
Department of Nursing,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55069, Korea.
Tel: +82-63-220-4681, Fax: +82-63-220-2054, E-mail: good-sr@hanmail.net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ceived: Jul 20, 2016 / Revised: Aug 18, 2016 / Accepted: Aug 18,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rickson은 제 2의 인생 즉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청소년기의 중요 발달과제라고 하였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으로서의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 고양시킴으로서 건강한 성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필수요소[1]로서 부모와 형제, 친구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하게 되어 여러 갈등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신중히 탐색하고 자신을 재정립하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게 된다[2]. 또한 자아정체감은 개인을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해 주는 연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로서의 통합감을 얻게 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한다. 가족은 개인이 속한 일차적 환경으로서,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청소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의 역할 중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나 인간이 태어나며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사회 환경으로서의 가족의 역할과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주고받는 가족의 속성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가족학에서는 가족은 개방체계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전제하에, 가족의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모든 가족은 도전과 잠재적 성장의 역량이라는 강점이 있으며 이는 미래의 성장과 변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가족건강성"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3]. 인간 성장발달 단계 중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사회성을 키우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성은 성인기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및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4].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양육자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으로 자녀 양육에서 자녀의 성격과 태도와 행동, 그리고 가치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로서 보편적인 감정과 느낌, 습관적인 행동의 표현이다[5]. 인간이 태어나며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자 최초의 사회적 관계로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어 아동의 행동문제 중 주요원인은 부모의 양육태도로 강압적이고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6]. 이에 반해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자율적, 민주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7], 학교생활적응력이 더 좋다[5]는 주장은 변화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정서적 특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다르게 지각될 수 있어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객관적 속성 못지않게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지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지각 경향으로 발생하는 차이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8]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여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관련한 연구는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9], 학교적응과 부적응[5] 등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할 간호학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를 포함하여 살핀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제공자, 상담자, 보건 교육자로서 청소년기 특히 신체적, 심리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더 빠른 성숙과정과 민감한 시기에 있는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속한 가족환경의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여고생이 인지하고 있는 가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자아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을 파악하여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와 B시에 위치한 2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입시와 관련된 3학년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임의표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Multiple linear regression 이용 시 효과크기를 0.15 (중간)로 하고 예측요인을 9개로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166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해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90부(회수율: 95%)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총 186부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담임선생님과 학생에게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작성 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될 것과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과 연구참여 도중 중단하고 싶을 때에는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3. 연구도구

1) 가족건강성

가족 건강성은 Yoo[1]가 한국문화 및 가족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가족 건강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로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8~3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전체 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8이었다.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Kim[10]이 제작한 도구를 Jung [11]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질문내용으로 수정 · 보완한 총 33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수용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수용-거부 요인과,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자율-통제 요인, 성취, 압력의 과잉-비과잉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최저 33점에서 최고 132점으로 분포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5였다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Park[12]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자아정체감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우리 문화와 생활에 알맞게 수정 · 보완하여 개발된 검사지를 Lee[13]가 일부 수정 · 보완한 총 48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8~240점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지각된 가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도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é's test를 이용하여 각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

상자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연속변수가 아닌 아버지 학력, 경제상태, 가족형태는 dummy 변수 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학년이 142명(76.3%)으로 제일 많았고, 나이는 17세가 43명(23.1%), 18세가 143명(76.9%)이었으며, 출생 순위는 둘째가 95명(51.1%)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 상태는 아버지, 어머니 양쪽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아버지 중 126명(60.0%), 어머니 중 108명(70.4%)이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가정 경제는 156명(83.9%)이 중간층, 32명(17.9%)이 하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24명(67.4%)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한 다른 가족형태도 29명(15.8%)을 나타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44 (23.7)
	2nd	142 (76.3)
Age (year)	17	43 (23.1)
	18	143 (76.9)
Birth order	1st	69 (37.1)
	2nd	95 (51.1)
	＞3rd	22 (11.8)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25 (13.9)
	High school	108 (60.0)
	＞College	47 (26.1)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21 (16.7)
	High school	126 (70.4)
	＞College	32 (17.9)
Perceived household economy	High	22 (12.0)
	Middle	156 (83.9)
	Low	5 (2.7)
Family type	Large family	18 (9.8)
	Nuclear family	124 (67.4)
	Single parent family	29 (15.8)
	Other family	13 (7.1)

2.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도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340점 만점에 평균 207.76점(평균평점 3.06)으로 중간 정도의 가족건강성을 나타내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132점 만점에 평균 90.79점(평균평점 2.75)으로 중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여고생이 인식한 자아정체감 정도는 240점 만점에 평균 153.41점(평균평점 3.20)으로 중간 정도의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의 차이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가족건강성은 가정의 경제상태(F=16.16, p＜.001)와 가족형태(F=4.24, 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é 다중비교결과 가정 경제상태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경제상태가 '중'과 '하'인 여고생보다 '상'인 여고생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으며, '중'인 여고생이 '하'인 여고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가족형태로는 '한 부모 가족'형태보다 '핵가족'과 '대가족'에 속한 여고생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부모양육태도는 가정 경제상태(F=4.25, p=.01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상태를 '상'으로 인식한 여고생이 '중'으로 인식한 여고생보다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은 아버지의 교육상태(F=3.13, p=.046)와 가정 경제상태(F=6.64,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다중비교결과 자아정체감은 가정 경제상태가 '상'인

Table 2. Scores of Family streng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go-Identity (*N*=186)

Variables	Range of score	M±SD	Scale	M±SD
Family strength	83~333	207.76±45.43	1~5	3.06±0.67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63~111	90.79±8.74	1~4	2.75±0.26
Ego-identity	52~234	153.41±24.83	1~5	3.20±0.52

Table 3. Family Strength wi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Ego-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Variables	Categories	Family streng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go-identity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Variables (total)		207.76±45.43 (3.06±0.67)		90.79±8.74 (2.75±0.26)		153.41±24.83 (3.20±0.52)	
Grade	1st	205.80±50.21	-0.33	90.27±8.16	-0.45	150.66±21.30	-0.84
	2nd	208.37±44.02	(.567)	90.95±8.94	(.240)	154.27±25.84	(.145)
Age (year)	17	205.88±50.79	-0.31	90.35±8.24	-0.38	150.81±21.53	-0.78
	18	208.33±43.86	(.455)	90.92±8.91	(.277)	154.20±25.76	(.181)
Birth order	1st	212.06±53.04	0.95	91.00±10.53	0.15	152.29±26.41	0.19
	2nd	207.18±37.58	(.387)	90.85±7.53	(.866)	154.51±24.93	(.831)
	≥3rd	196.82±50.61		89.86±7.68		152.23±19.51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93.28±52.44	1.54	89.80±10.38	0.65	142.12±32.25	3.13
	High school	209.59±45.58	(.217)	91.47±8.66	(.526)	155.40±21.85	(.046)
	≥College	212.06±42.51		90.02±8.51		155.51±26.32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210.52±50.95	0.15	90.67±10.55	0.25	151.19±23.41	1.43
	High school	209.13±44.48	(.865)	91.28±8.48	(.778)	153.01±22.80	(.241)
	≥College	204.69±46.32		90.09±8.37		160.47±27.75	
Perceived household economy	High[a]	246.81±45.93	16.16	95.46±9.12	4.25	169.64±27.77	6.64
	Middle[b]	203.76±41.20	(.001)	90.23±8.38	(.016)	151.64±22.58	(.002)
	Low[c]	144.20±37.92	a>b, c b>c	86.20±13.76	a>b	136.00±51.13	a>b, c
Family type	Large family[a]	221.61±46.19	4.24	93.44±7.92	2.22	155.22±19.54	0.25
	Nuclear family[b]	213.13±44.96	(.006)	91.38±8.40	(.087)	152.35±25.25	(.860)
	Single parent family[c]	185.07±37.95	c<a, b	87.86±10.13		154.93±28.53	
	other family[d]	192.46±48.89		88.23±9.08		157.46±22.18	

여고생이 '중'과 '하'보다 자아정체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고생의 가족건강성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r=.360, p<.001)와 여고생의 자아정체감(r=.36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는 가족건강성(r=.41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여고생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은 가족건강성(r=.414, p<.001)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r=.36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mily Strength with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Ego-identity (*N*=186)

Variables	Family streng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go-identity
Family strength	1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644**	1	
Ego-identity	.414**	.360**	1

*p<.05, **p<.001.

5.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이변량 분석결과 유의했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Ego-identity (*N*=186)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Family strength		0.194	0.050	.355	3.889 (.001)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0.488	0.244	.172	2.001 (.047)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2.553	8.681	-.033	-0.294 (.769)
	≥College	10.528	7.559	.158	1.393 (.165)
Economy*	Middle	11.494	7.031	.228	1.635 (.104)
	Low	11.679	7.765	.225	1.504 (.134)
Family type*	Large family	-14.821	7.994	-.177	-1.854 (.065)
	Nuclear family	-14.689	6.281	-.280	-2.339 (.020)
	Single parent family	-4.378	7.150	-.064	-0.612 (.541)
		R^2=.255, Adj. R^2=.217, F=6.696, p<.001			

*Dummy coded (Father's education_Middle school=0, Economy_High=0, Family type_Other type=0).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인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89~0.575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 또한 1.739~5.280으로 10 미만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 test 실시 결과 1.885로 2에 가까운 값이 나와 오차항들은 서로 자기 상관없이 독립인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아버지 학력, 가정 경제상태, 가족형태였으며, 자아정체감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가족건강성(β=.355, p=.001), 부모양육태도(β=.172, p=.047), 가족형태_핵가족(β=-.280, p=.020)이 p<.001과 p<.05수준에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5.5% (F=6.696, p<.001)이었다.

논 의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 중 가장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심리적으로 동반성장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은 불완전한 신체상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야기[14]되며, 이로 인한 혼란과 위기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과 건강 행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신건강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은 3.06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건강성에 대해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려우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과 Lim[16]의 3.31점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Lim과 Lee[17]의 3.37점에 비해 낮은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역시 중앙값보다 높은 결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대상자의 지역 또는 성별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의 차이로 인함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상태가 '상'인 여고생이'중'과'하'인 여고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Park과 Kim[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주관적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한 Lim과 Lee[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 부모 가족형태의 여고생의 가족건강성이 가장 낮게 나온 본 연구결과는 매년 한 부모가족의 증가율이 2.8%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위한 상담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가족형태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2.75점(4점 만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연구대상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Jung[11]의 연구에서 도시 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86점과 유사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eo 등[5]의 2.93점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이다. 양육태도란 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측면이 많은 문화양상 중의 하나[19]임을 고려할 때, Seo 등[5]의 연구와의 차이는 연구 시기 및 대상자의 발달단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

로 사료하며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청소년기 시기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양육태도를 가정 경제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나 보살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경제 상태는 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정경제상태이므로 실제 경제 상태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고 있는 가정 경제 상태와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근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부차를 고려해 볼 때 여고생을 위한 상담 및 정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대상자의 가정 경제상태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은 3.20점(5점 만점)으로 연구도구가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Kang[20]이 농어촌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3.08점에 비해 높았고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Eo 등[21]의 3.53점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와 가정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답한 여고생이 자아정체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Perosa 등[22]은 부모와의 친밀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독립성과 유능함을 느낌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획득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더 제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존 통념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양육과정에 아버지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버지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에 가족지지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한 Kim과 Kwon[23]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경험과 인지를 통해 형성되지만 Shin[24]이 부모의 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듯이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성공적인 자아정체감 성취를 통해 안정된 성인기로의 발달을 촉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부모님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정체감 역시 가정 경제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나 가정 경제상태를 '상'과 '하'로 지각하고 있는 여고생 수가 '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간의 상관관계는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족과 부모가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25]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변량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독립변수 중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가족형태(핵가족)가 $p<.001$과 $p<.05$수준에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5.5%($F=6.696$, $p<.001$)이었다. 이중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 Byun[2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청소년에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보고한 Kim 등[27]의 주장과 가족원 간의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측면에서 높은 가족건강성을 나타내는 가족에서 자란 사람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한 Yun과 Lee[28]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에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역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발달에 가족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며, 부모는 청소년기로의 전환시기에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 Sternberg[2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한다. 즉, 향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가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형태(핵가족)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형태가 다른 모든 형태의 가족형태보다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아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가족건강성에서 가족형태 중 한 부모 가족 보다 핵가족과 대가족의 형태에서 여고생이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인 결과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청소년의 가족형태와 자아정체감을 연구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보다 자아정체감이 낮게 나왔다는 연구[30]와도 같은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 자신의 인생을 위한 꿈을 꾸고 성인기를 위한 인생 설계를 하는 청소년기에 여고생들은 직업과 진학 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탐색할 때 겪을 수 있는 갈등과 방황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획득해갈 때,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를 강하게 지각하고 긍정적인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186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자아정체감 정도를 확인

하고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여고생은 가족의 건강성을 중간 정도로 답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아정체감은 중간 정도를 나타났다.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는 가족건강성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정체감은 가족건강성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가족형태(핵가족)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총 25.5%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 소재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과 분석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상호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여고생의 입장에서 지각한 측면만을 다루었기에 부모 및 형제자매와 같은 다른 가족원의 측면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 중 기존에 밝혀진 요인들 외에 가족의 병리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고생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는 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REFERENCES

1. Park AC. Self-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3;17(2):45-70.
2. Rhee J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awareness of teenagers and decision making styles. The Korean Society for Study on Welfa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2006;10(1):70-100.
3. Yoo YJ.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4;9(2):119-151.
4. Shin M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family, family health, and self-esteem perceived by teenagers in low-income families. 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Forum for youth culture>. 2015;42:33-56. http://dx.doi.org/10.17854/ffyc.2015.04.42.33
5. Seo SN, Lee SG, Lim SH.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2;10(8):327-333.
6. Pryor JE, Pattison R.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The downside of silence. Journal of Family Studies. 2007;13(1):72-77. http://dx.doi.org/10.5172/jfs.327.13.1.72
7. Sandhu D, Singh B, Tung S, Kundra N.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al attitudes. Pakista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2011;27(1):89-105.
8. Jung JY, Kim JN.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18(12):227-254.
9. Hwang HJ, Paek JY. Effects of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2015;24(1):99-122.
10. Kim KJ.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85;23(2):35-52.
11. Jung P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the sense of self-esteem,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around islands and Cities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05. p. 1-55.
12. Park AC.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6;15(1):140-162.
13. Lee SK. A structur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ego-identity development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1999. p. 1-107.
14. Yang SJ, Choi Y, Lee HY. Eating attitude, ego-identity, and self-esteem among the Urb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1;40(3):477-486.
15. Lee GY, Song SH. A comparison of life skill's levels of adolescents by health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3;26(2):114-123.
16. Jung JY, Lim JH.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1;23(1):37-51.
17. Lim JA, Lee IS. A study on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6;15(2):37-62.
18. Park YW, Kim KH. Effects of quality of life,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5;15(1):221-232.
19. Yu JH, Chang KM.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autonomy and school achievement.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007;4(1):117-133.
20. Kang MA. A study on the sense of identity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Ewha

Journal of Education. 1992;13:97-107.
21. Eo YS, Lee KR, Choi SS.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the independence of his parents with college adjustment in freshman of nursing school.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13(6):3073-3084.
22. Perosa L, Perosa S, Tam H. Intergenerational systems theory and identity development in young adult wome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02;17:235-259. http://dx.doi.org/10.1177/0743558402173002
23. Kim CN, Kwon YH.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go identity of young people.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02;13(1):124-136.
24. Shin JI.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parent support, and self-identity on career indecision [dissertation]. Seoul: Hongik University; 2010. p. 1-93.
25. D Zhang, A Katsiyannis J. Zhnag. Teacher and parent practice on fostering self-determi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2002;25:157-169. http://dx.doi.org/10.1177/088572880202500205
26. Byun JH.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master's thesis]. Busan: Inje University; 2009. p. 1-78.
27. Kim YG, Lee SJ, Shin HS.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s, adjustments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Journal of Human Ecology. 2008;18:116-125.
28. Yun YJ, Lee MS. The influence of family health on the self-esteem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7;25(2):105-122.
29. Sternberg L. We know something: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01;11:1-19. http://dx.doi.org/10.1111/1532-7795.00001
30. Kim JH. The comparative study on self-identity between misdeed teenagers and common teenagers [master's thesis]. Suwon: Kyonggi University; 2002. p. 1-70.